

# 영광군, 관내 기업체 인구늘리기 동참

### 대한그린에너지·에이원스페이스 MOU

####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등 동참

영광군은 지난달 31일 송림그린테크단지 입주 기업체인 ㈜대한그린에너지, ㈜에이원스페이스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서는 지난달 24일 대마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2개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내 기업체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기 제조업체인 ㈜대한그린에너지와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에이원스페이스 두 기업체의 임직원 수는 총 60여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영광군과 각 기업체는 소속 직원들의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동참 및 관내 정착 유도,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성 군수는 “지역 인구문제



를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한국철도 전남본부, 사고복구훈련

### 이례사항 발생 대비 훈련으로 조치역량 제고

한국철도(코레일) 전남본부는 최근 14시에 사고 및 장애 발생 등 이례상황에 대비한 사고복구훈련을 시행했다.

전남본부 차량처, 순천차량사업소 직원 21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전라선 순천~구례역간 사이에 발생한 무궁화 객차탈선으로 열차 비상정차 및 전라선 운행중단 상황을 가상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직원들의 개인별 임무 숙지여부와 출동 신속성, 이례사항 발생 시 대처역량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장애에 대한 조치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순천역 구내에서 탈선된 실제 객차를 사고복구기중기, 잭키트 등을 활용하여 차량복구훈련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행했다.

김양숙 한국철도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역과 열차 방역에 완벽을 기함은 물론, 운행선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하천수 사용료 추가 징수로 세입 증대에 박차

광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로 세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천수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있는 물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는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위임을 받아 공사가 2013년부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소제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섬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해 왔다.

공사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저수용량을 증설하여 2018년 5월부터 하천을 통한 댐용수 공급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과거 댐용수로 분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하천수에 대하여 공사가 제출한 하

천수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우선 ‘지방재정법’ 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도래하는 2014년과 2015년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30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7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는 공사가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부과한 하천수 사용료 115억 원을 추가 징수하게 되며, 향후 매년 42억 원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분권화 등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는 가뭄에 대비와 같은 재원이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화순군, 긴급생계비·경영안정자금 접수

화순군이 지난 1일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첫날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등 접수창구는 지원 요건 등을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군민들이 많았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 12개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읍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화순문화회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4곳에서 접수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 농협 보성군지부, 화훼농가위해 팔 걷었다

### 보건소·군청에 수곡 전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화훼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성군 보건소 직원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농협은행 보성군지부는 지난 1일 화훼농가와 보건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자 인근 화훼농가로부터 수곡을 구매하여 보건소와 보성군청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를 가졌다.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서희수 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은 “지역사회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 곡성섬진강천문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 준비



곡성섬진강천문대의 전경 사진이다.

곡성섬진강천문대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은 곡성군이 ‘지역과학관 전시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

다. 지역과학관 전시개선 지원 사업은 공립과학관 등의 콘텐츠 개선을 지원해 지역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곡성군이 응모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곡성섬진강천문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은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투자하는 총 10억 규모의 사업이다. 전시체험관과 4D관을 구성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곡성군은 보다 규모 있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군비 8억을 자체적으로 추가 투입해 곡성섬진강천문대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그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곡성섬진강천문대는 2007년에 개관해 600mm 대형 망원경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과학행사 및 상시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천문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와 곡성군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해 왔고, 이번 사업을 통해 한층 발전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곡성섬진강천문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며, 현 상황이 안정될 시 재개관 예정이다. 임시휴관 기간 중 관측 장비 개선, 내외부 보수작업,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신설 등 전반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